

《세계화》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미제의 세계제패 책동과 그 교활성

민 영 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권옹호〉와 〈세계화〉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6페이지)

랭전종식후 미제는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세계제패전략인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책동에 발광적으로 달라붙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 악랄해지고있는 미제의 《세계화》책동으로 하여 세계도처에서 주권국가들이 전복되고 무고한 인민들의 피가 흐르고있으며 세계정치정세는 매우 복잡해지고있다.

이 글에서는 《세계화》의 간판밑에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세계제패책동과 그 교활성에 대하여 까밝히려고 한다.

1980년대말 1990년대초 국제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사이에 심각한 대립과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련과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쏘미 두 초대국을 중심으로 한 동서뿔력사이의 랭전이 종식되였다. 랭전의 종식은 제2차 세계대전후 근 반세기에 걸쳐 계속되여온 쏘련과 미국 두 초대국을 중심으로 한 동서간의 대립 관계구도를 붕괴시키고 국제세력균형을 파괴하였다. 랭전의 종식으로 세계사회주의체제가 없어지게 되자 미제는 이것을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게 된 절호의 기회로 여기였다.

이로부터 미제는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며 이 《전략적기회》에 저들이 주도하는 《일극세계》와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려고 망상하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침략적이며 반동적인 《세계화》론을 들고나오게 되였다.

1989년 7월 미국대통령 부쉬1세는 유럽행각시 힘의 우세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침략교리이며 반사회주의전략인 《새로운 세계론》에 대하여 떠벌이였으며 1991년 1월에는 미국회에 보낸 일반서신연설에서 《세계화》전략을 정식으로 들고나왔다. 그리고 오래동안 바라오던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기회가 왔다고 하면서 《새로운 세계질서》란 랭전의 위험이 없고 미국식시장과 민주주의가 번성하는 세계질서라고 력설하였다. 그가 말한 《새로운 세계》란 《자유국가들의 세계》 즉 지구상에 사회주의가 없고 자본주의만이 존재하는 세계를 말한다.

결국 미제가 들고나온 《세계화》는 동서대결구도에 의하여 양극으로 갈라졌던 세계를 미국의 세력권안에 든 하나의 세계로, 지구상에 미국식민주주의, 미국식시장경제만이 존재하는 미국지배의 일극세계로 만들자는것이다.

미제는 랭전종식후 《세계화》의 간판밑에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교활한 책동에 매여달렸다.

미제는 먼저 정치분야에서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책동에 발광적으로 달라붙었다.

미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을 친미국가,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나라들로 만들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미제는 우선 우리 나라와 쿠바, 이란과 같이 반미적립장이 강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무슨 《악의 축》, 《테러지원국》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여러가지 비렬한 방법으로 고립압살책동을 강화하였다.

미제는 랭전이 종식된 후에도 세계사회주의의 보루로 굳건히 서있는 우리 나라를 고립압살하기 위해 1992년에 남조선주둔 미군무력을 더욱 정예화, 기동화하여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와 기타 지역에서의 군사작전도 수행하는 《지역군》으로 전환시켰으며 《북의 핵개발의혹》이라는 구실을 만들어 압력과 제재를 가하는 등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특히 새 세기에 들어와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고 조미기본합의문을 공공연히 위반하면서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작전계획까지 짜놓고 립체적이며 전면적인 전선을 형성하여놓았다. 그리고 저들의 동맹국들과 추종세력들까지 동원하여 경제제재를 실시하는것과 함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 《종교문제》를 거들면서 외교적압력의 도수를 높이는 등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비렬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미제는 쿠바를 고립압살하기 위해 《마르띠방송국》을 비롯한 모략선전수단들을 동원하여 반쿠바사상교란전과 심리전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빈번한 군사연습으로 위협하는것과 함께 경제적봉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토리첼리법》, 《헬름즈—버튼법》 등을 조작하였으며 30년동안이나 반쿠바무장조직인 《알파66》, 《2506려단》 등을 운영하면서 간첩들과 반혁명적무장악당들을 쿠바에 침투시켜 파괴압해책동을 강화하였다.

1990년대초부터 이란의 《핵위협설》을 요란하게 떠들어오던 미제는 2002년 이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란핵문제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 끌고갔으며 《군사적공격》설, 《정권교체》설까지 내돌리면서 압력과 제재에 박차를 가하였다.

미제는 또한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에 대해서는 《개혁》, 《개방》을 철저히 추진시켜 나가도록 압력의 도수를 높이고 《색갈혁명》과 같은것을 조작하여 정치구조를 미국식으로 변화시키려고 책동하였다.

2004~2005년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과 같은 나라들에서 《장미혁명》, 《오렌지혁명》, 《튤립혁명》(레몬혁명)이라는것을 통하여 친미정권들을 만들어낸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와 함께 미제는 해마다 《년례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저들의 지휘에 고분고분 순종하지 않는 나라들에서의 《인권》에 대하여 시비중상하면서 제재와 압력소동을 벌리였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을 리용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저들의 이러한 내정간섭행위를 합법화, 정당화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미제는 다음으로 경제분야에서의 《세계화》책동에 적극 매여달렸다.

미제는 세계 모든 나라들의 경제를 미국경제에 종속시키며 세계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질서, 자본주의시장경제질서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미제는 《원조》와 《협조》, 《세계적인 경제》건설의 필연성과 현실성을 주장하면서 매개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를 파괴하고 그들을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시장경제체계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미제는 우선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등 저들이 독판치는 세계경제기구들을 동원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측시키고 이 나라들의 경제를 시장경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였으며 많은 나라들을 망라시킨 세계적인 《자유금융시대》, 《자유무역시대》를 만들기 위해 날뛰었다.

금융과 무역분야에서의 《자유화》를 통해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민족경제를 무력화시키고 시장경제로 전변시키려는것이 바로 《세계화》의 주요목표의 하나이다.

미제는 《국제통화협조증진》이니, 《발전도상나라들의 사회경제발전원조》니 하는 간판밑에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서의 통제권을 저들이 틀어쥐고있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이 기구 성원국들이 대부액을 기구들의 감독하에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을 위해 리용하도록 강요하였다. 특히 미제는 새 세기에 들어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공격의 화살을 돌리고 제국주의적세계경제기구들을 내세워 차관과 《원조》를 미끼로 경제의 사영화, 민족화폐의 평가인하, 시장개방 등을 요구하고 경제적락탈을 강화하였으며 지어 이 지역 나라들의 경제구조까지 저들의 《세계화》전략에 맞게 뜯어고치려고 책동하였다.

미제는 《공동의 리익과 번영》을 떠들면서 발전도상나라들을 경제적으로 더욱 철저히 예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국주의적지역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대표적으로 1994년 12월 19일 미제는 제1차 아메리카지역국가수뇌자회의에서 《번영을 위한 새로운 동반자관계》라는 미명하에 《아메리카자유무역시대》창설안을 정식 들고나왔으며 아메리카지역나라들을 거기에 끌어넣기 위한 압력과 회유의 양면술책에 매여달리었다. 한편 남아메리카공동시장, 중앙아메리카공동시장, 카리브공동시장을 비롯한 지역적 통합기구들과의 교섭을 진행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흡수하여 《아메리카자유무역시대》를 형성하기 위해 책동하였다.

미제의 《아메리카자유무역시대》창설책동은 새 세기에 이르러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미제는 또한 다국적기업체들을 앞세우며 세계화폐제도에 의한 통합으로 경제의 《세계화》를 급격히 추진시키려고 책동하였다.

본국의 어미회사가 다른 여러 나라들에 많은 새끼회사들을 두고 그것들을 통하여 세계적규모에서 독점적고물리윤을 얻는 제국주의대독점기업체인 다국적기업체들은 현재 200여개로서 그중 80여개는 미국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면서 해당 나라들의 경제를 저들에게 예측시키며 시장경제구조로 전변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놓고있다.

이와 함께 미제는 《선택된 화폐》인 달러가 세계 많은 나라들의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류통되고있는것을 리용하여 그 나라들의 재정금융부문을 저들에게 예측시키며 나아가서 경제전반을 틀어쥐려고 책동하였다. 한편 심각한 경제위기로 하여 떨어지고있는 달러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친미적인 국제은행들과 결탁한 금융투기업자들을 부추겨 의도적으로 금융위기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 일어난 동남아시아금융위기, 메히꼬금융위기 등은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경제의 《세계화》책동으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경제는 미제에게 더욱 예측당하고 경제형편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게 되었다.

미제는 다음으로 문화분야를 《세계화》하기 위해 교활하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미제는 미국식생활양식과 문화를 퍼뜨려 사람들이 미국식가치관에 몰들도록 하여 종당에는 상대방을 와해시키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제는 영화, 연극, 음악 등 문학예술작품들과 신문, TV방송, 잡지를 비롯한 각종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악랄한 침투책동을 감행하였다. 대표적으로 1996년에 시작된 《자유아시아방송》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 언어로 24시간 방송하면서 미국식자유와 민주주의, 황금만능주의 등을 찬미하고 다른 나라의 《결함》들을 걸고들었다. 1997년 3월부터는 우리 나라를 대상으로 방송을 시작하였다.

미제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도 저들의 유선TV방송의 방영과 함께 각종 반동적인 신문, 잡지들을 들이밀었다. 그리고 위성출판소를 설치하고 저들의 출판업체들을 라틴아메리카에 대대적으로 들이밀었다.

특히 컴퓨터용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전자매체들을 대량전파하여 젊은 세대들을 타락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이에 대하여 1998년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가장 큰 수출상품은 땅에서 나는 농작물이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라 영화와 TV, 음악, 서적, 컴퓨터용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대량 생산되는 유행문화제품이다.》라고 썼다. 미상무성의 자료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와 오락제품의 국제적인 판매액이 1996년에 602억US\$, 1999년에 1 000억US\$, 2001년에 1 600억US\$로서 그 어느 부문보다 높았다고 한다.

오늘날 《자유무역》의 간판밑에 미국의 이러한 많은 유행문화제품들이 합법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에 밀려들어 사람들의 사상관념과 생활방식 등 여러 측면에 서서히 침습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을 위주로 하는 사회의 각계층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다.

미제는 다음으로 군사분야에서의 《세계화》책동에도 발광적으로 달라붙었다.

미제는 우선 세계유일의 《군사대국》으로 자처하면서 군사적우위로 많은 나라들을 《호상안전》의 미끼에 걸어 군사동맹이나 군사조약, 군사빨력에 철저히 묶어놓고 저들의 세계제패책동에 리용하려고 하였다.

미제는 서유럽, 아시아, 이전 소련령토에서 적대적인 초대국이 새로 생겨나지 못하게 하며 그 어떤 국가나 국가그룹도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게 억제할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는것을 랭전종식후의 정치, 군사적사명으로 내세우고 군비를 계속 증강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나토 등의 군사빨력에 끌어들여 철저히 구속하였다.

랭전종식후 미국은 세계군사비총액의 40%이상에 달하는 군사비를 계속 유지하여왔다. 극도의 채무위기로 군사비까지 축감하게 된 오늘에 와서도 미국의 군사비는 천문학적수자에 이르고있다. 그것은 2016회계년도 군사비가 6 070억US\$로 책정되어 미국회하원에서 통과된것을 놓고도 알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침략적군사빨력인 나토는 랭전종식후 그 존재명분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랭전시기에 비하여 거의 두배의 성원국을 가진 세계최대의 군사빨력으로 확대강화되었다. 미제는 1994년 브뤼셀나토수뇌자회의에서 나토의 동쪽예로의 확대를 정식제기하였으며 1999년에는 폴스까, 마자르, 체스꼬를 나토의 정식성원으로 받아들였다. 2004년에는 벨가리아, 로므니아, 슬로벤스꼬, 슬로베니아, 에스또니아, 라트비아, 리트바 등 7개 국을, 2009년에는 알바니아와 흐르바쯔까를 받아들여 나토성원국을 늘였으며 지금도 나토의 동쪽예로의 확대를 계속 추진시키고있는것으로 하여 로씨야를 비롯한 세계인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미제는 또한 강권으로라도 《세계화》를 기어이 실현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군사적힘으로 미국식가치관을 다른 나라들에 주입하려고 책동하였다.

미제는 《세계화》를 군사적힘으로 강행하기 위해 《지역분쟁해결전략》, 《확대전략》, 《반테로전》 등 모험주의적이며 지배주의적인 침략전략을 작성해놓고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 침략의 마수를 더욱 깊숙이 뻗치였다.

미제는 군사전략의 주되는 목표를 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두고 무력체계를 보다 기동적이며 정예화된 체계로 개편하였다. 미제는 여러 나라들에서 종족분쟁을 조장시키고 이 나라들에 대한 무장간섭책동을 감행하였으며 《민주주의회복》의 구실밑에 아이티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도 항공모함전단과 비행기, 수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무장간섭책동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1999년 3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유엔의 사전승인 없이 나토무력을 동원하여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였고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9.11사건을 계기로 《반테로》의 구실밑에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도발하여 이 나라를 강점하였다. 미제는 2003년 3월 20일~5월 1일까지 이라크전쟁으로 이 나라를 강점하였으며 이란《핵위협설》을 요란하게 떠들면서 이란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에 광분하였다.

미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는대로 나간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강도높은 핵위협공갈을 들이대었으며 《전략적인내》정책이라는것을 내들고 우리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군사적인 공세작전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의 발화점으로 되고있다.

새 세기에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제가 세계 도처에서 감행하고있는 《반테로전》은 반미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테로행위이며 새로운 변종의 침략전쟁책동으로서 미제가 추구하는 《일극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반테로전》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오고있는것은 세계를 테로와 보복의 수라장으로 만들어 일극세계를 수립하려는 미제의 야망이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제의 《세계화》책동의 교활성은 우선 《인류의 발전과 변영》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미국식민주주의를 강압적으로 내리먹임으로써 그들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말살하고 철저한 지배와 예속의 울가미에 묶어놓으려는데 있다.

미제가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온갖 미사려구를 다하여 극구 찬양하며 설교하는 미국식민주주의는 극소수의 권력자들과 부유한자들이 절대다수의 무권리하고 빈곤한 인민들을 억압착취하는 반동적민주주의이며 하나의 초대국이 제멋대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침략적민주주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이 미국식민주주의를 《인류공동의 가치》를 가지는 정치리념으로 확대전파하여 민족국가들의 존재자체를 무시하고 그들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말살함으로써 독점자본가들의 리익에 맞게 세계를 지배하려고 날뛰고있다.

이것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공공연한 도전행위이다.

미제의 《세계화》책동의 교활성은 또한 《원조》와 《협조》, 《세계적인 경제》건설의 간판밑에 매개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를 파괴하고 그들을 자본주의시장경제체계에 끌어들여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려는데 있다.

미제는 《세계경제의 동일화》, 《단일한 원리에 기초한 경제운영》의 요구를 반영하자면 《세계적인 경제》를 건설하는것이 세계경제발전의 합법칙적, 필연적귀결로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야말로 《21세기 세계경제부흥의 새로운 길》이라고 떠들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해 발전도상나라들에 시장개방을 강요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주성이 시대의 기본추세로 되고있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지향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에 대한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주관주의적인 외곡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적침략과 지배, 략탈을 합리화하기 위한 반동적인 궤변으로서 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독점자본의 《효률의 극대화》, 《리익의 최대화》일뿐 발전도상나라들과 근로대중에게는 참을수 없는 굴종과 보다 가혹한 착취만을 가져다줄뿐이다.

미제의 《세계화》책동의 교활성은 또한 《세계적인 문화》를 건설한다는 간판밑에 낚고 부패한 부르쥬아사상과 부르쥬아생활양식을 확대류포시켜 매개 나라 민족문화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고 세계 수억만 인민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듦으로써 저들의 세계지배를 손쉽게 이루어보려는데 있다.

인류문화는 매개 민족이 창조한 문화의 집합체이지 그 어떤 특정한 나라의 문화가 전 지구적으로 교류, 확산되어 생기는 《세계적인 문화》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문화의 《세계화》가 인류공동의 《문명발전》의 《묘안》이고 《유일한 처방》이나 되는듯이 묘사하면서 국경의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문화교류》를 통해서만 인류문화의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고 떠벌이고있다.

그러나 미제가 《제일 우수하고 보편성있는 세계문화의 본보기》라고 떠드는 부르쥬아 문화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근본바탕을 둔것으로서 사람들을 순수 《개인을 위한 개인》으로, 자기의 리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수로, 동물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가장 반동적인 문화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통하여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병들게 하고 민족성을 말살하여 그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 저들의 지배와 통제밑에 얹어매려는 미제의 《세계화》책동의 교활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세계화》책동의 교활성은 또한 세계유일의 《군사대국》이라는 명분을 세워 어떠한 도전세력의 존재도 용납하지 않으며 군사적힘으로 세계제패를 다그치려는데 있다.

이것은 군사의 《세계화》책동 역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것이 아니라 미국 일개국이 전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들고나온 힘의 정책임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이 미제가 감행하고있는 《세계화》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힘에 의한 세계지배 전략이며 교활한 침략과 전쟁정책이다.

그러나 미제가 다른 나라를 제멋대로 침략하고 략탈하며 국제문제를 좌우지하던 시대는 이미 영원히 끝장났다. 날이 감에 따라 침예화되어 가고있는 미제의 전반적위기는 《세계화》책동을 파산으로 몰아가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오늘 정의의 핵억제력을 역세계 틀어쥐고 세계제패실현을 위해 온갖 전횡을 다 부리고있는 미국을 최후의 심판장에 몰아넣고있다.

미제는 세계평화와 안전의 교란자, 파괴자이며 세계자주화위업의 주타격대상이다.

우리는 《세계화》의 간판밑에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교활한 세계제패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며 선군의 기치밑에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